

21세기와 대학의 인문교육

이 중 원 |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요즈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매우 자주 듣는다. 인문학자들의 꾸밈 섞인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여타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 충고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상 이의 성격과 배경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여 왔다. 혹자의 주장처럼, 어쩌면 인문학의 위기는 문자 그대로 인문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의 위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1세기의 생활과 문화적 양식에서 본다면, 인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정보사회가 요청하는 숨가쁜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전문적인 기술 내용을 담은 첨단 지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으로 보고 싶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인문학의 위기는 정체성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학이 인간 및 사회에 대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므로서 발생한 적응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모두 다 알다시피 20세기의 산업사회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을 반추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 가치에 맞게 조절·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적 성숙은 오

히려 퇴보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 괴리는 갈등으로 나타나 현대 기술문명 안에서 인간 소외라는 실존적 위기를 불러 왔고, 급기야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지게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문학은 사실상 큰 힘이 되지 못했던 바, 이로 말미암아 인문학의 위기가 인구에 회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위기는 물론 새로이 변화한 환경 속에서 인문학 자체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와 내용을 시의 적절하게 확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문학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인문학의 위기를 인문교육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인문교육을 단지 인문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향한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판단력,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 및 실천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 세계에 우뚝 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문교육은 대학에서 흔히 교양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교양교육이 분명 그러한 목적 지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개론적 수준의 이해에 머물거나, 해당 전공분야 교육의 기초과목 혹은 도구과목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에서 인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경험과 떠오르는 몇몇 단상들을 중심으로 필자의 이야기를 엮어 보겠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교육'에 몸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표현들에서 보듯이 교육의 시간적 사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슬은 단지 시간적 연속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여 왔고 또 체험할 수 있듯이, 이는 어떤 인과적 연쇄의 사슬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사고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육이 어떠한가가 곧 이은 중등교육의 조건이 되어 중등교육을 구속·제약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중등교육이 고등교육을 제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암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짜여져 있는 실정 이어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격의 형성이라는 (인문)교육 본래의 목적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는 동안, 인문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대학교육을 제약하는 하나의 굴레로 승계된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외형상 분명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선 벗어나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자라난 나무에 비유될 수 있는지라, 입시교육에 의해 누적되어 온 부작용과 한계

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제약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한편으로 학문적 깊이나 질적인 수준에서 매우 떨어지는 개론적 수준의 교양강좌들의 남발과,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철용성화한 전공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양교육의 대강을 살펴보면, 앞서 강조한 인격형성을 위한 참된 인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학문적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중등교육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 관한 개론들(문학, 역사학, 논리학, 철학, 과학방법론,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학 등)이 입시교육에 밀려나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중추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을 심각할 정도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양교육 안에서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과목 혹은 도구과목들(수학, 물리학, 영어, 국어작문, 경제학 등)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만큼 인문교육의 자리가 비좁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등교육과정까지 제대로 된 인문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인지라, 대학교육에서나마 보다 전향적인 방식으로 인문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 기회가 한층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외는 반대로 우리의 대학교육은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지나치리만큼 세분화된 전공교육에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판단능력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그들을 어떤 제한된 틀에서 특정의 기능적인 부분만이 불균형적으로 비대해진 기형적 기능인을 양성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대학교육이라기 보다는 직업적인 전문교육의 위상에 걸맞은 행위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문 직업교육이 진정한 대학교육의 중추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문교육은 어떠한가? 필

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춘다면, 인격 형성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강의시간) 모두에서 전공교육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어야 한다.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개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폭넓음과 깊이를 갖춘 심화교양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의시간 비중 또한 한층 높아져야 한다(몇몇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양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을 적어도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둘째, 정보나 지식을 단지 전달하는 교육이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자각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사회 및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그리고 자신이 탐구하는 전공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탐구와 함께 관련 학문분야와의 연관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고·판단할 수 있는 학제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및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학제적인 탐구 능력의 중요성은 전공교육뿐 아니라 인문교육에서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1세기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활동에 관한 정보들은 모두 디지털화하여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이를 가공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생명의 인위적 조작과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더 큰 어려움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있다. 지금처럼 이과와 문과 학문이 서로 분리되어 상호 교류가 심각히 단절된 상황이라면, 생명을 조작하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은 사실상 몇몇 윤리적 기준에 관한 지식의 전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제시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없다. 대신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정체성, 과학기술에 대한 실용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사이의 조화, 인간 역사에서 나타난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건들로부터의 역사적 교훈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성숙한 이해를 통해, 과학기술자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치판단 능력을 갖추도록 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를 위해 적어도 생명과학과 윤리학의 두 분야 학문을 이해하고, 나아가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학제적 사고 및 탐구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제적 사고 능력을 갖춘 생명과학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의 인문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격 형성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 첨단기술에의 종속, 사이버 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체성 등의 문제들 역시 이와 같은 학제적 탐구의 좋은 주제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21세기에서의 인문교육은 특별히 학제적인 사고 능력의 배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더욱이 사회에 능동적인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인문교육의 경우,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읽어 내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인문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인문학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틀 안에만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인문학적 주제들의 확립과 인문교육의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과 학문과 문과 학문의 구분이라는 전통적인 틀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과제들을 찾아내고,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향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인격 형성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

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치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향해 먼 장정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의 인문학적 주제 설정, 설정된 주제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학문 분야간 공동 협력연구의 활성화, 관련 주제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 개발, 인격 형성지도를 위한 실천적 교수법 연구 등등.

교육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가르침(敎)을 통해 사람을 인격체로 성장(育)시키는 활동'이다. 그런데 가르침이 자연발생적으로 인격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준비와 노력이 투여되지 않는 한, 가르침은 단순히 '교실에서의 가르침'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인간이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위기들을 만든 것도 역시 사람이지만,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인문학자들의 노력만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중원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수신문사 편집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과학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새로운 접근을 위한 시론", "양자이론의 실재론적 해석: 논쟁과 새로운 모색", "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유물론" 등 다수가 있으며, 현재 자연과학의 개념적·방법론적 토대에 관한 연구와 함께, 환경문제·생명문제·사이버 인간의 문제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하에서 제기되는 인간의 문제들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